동학농민혁명 스토리(웹소설) 공모전

응모분야	웹소설	접수번호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작품제목	*녹두장군의 전담 호위가 되었습니다*		

1화 : 이게 대체 무슨 일?

삐리릭, 무전 치는 소리와 함께 자잘한 기계음을 동반한 음성이 소내를 울렸다. 언제 들어도 적응되지 않는 무전벨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중에는 정이준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 역사박물관, 폭탄테러 신고 접수. 반복한다 한국 역사박물관, 폭탄테러 신고 접수. 전술요원, EOD(폭발물처리 요원) 즉시 투입하기 바란다."

약간의 소란 속에서 이준은 말없이 장구 장비를 챙겼다. 국회 의사당을 폭파시키겠다고 난동 피운 정신병자를 잡아들인 게 엊그제였다. 순간, 이준은 저들끼리 서로 짜 맞추기라도 한 걸까? 지겹지도 않은가, 따위를 생각했다.
전 날 받은 휴무를 음주로 때웠더니, 머릿속이 마치 마른 걸레 짜듯 구불구불 뒤틀리는 것 같았다. 이준은 메스꺼운 표정으로 무릎보호대를 갈무리했다. 몸을 숙였을 뿐인데도 간에서 천불이 났다.

"어휴, 속이야. 뒤질 것 같네."
"정 부장님, 괜찮으세요?"

올해 새로 들어온 신입이 몹시 걱정된다는 표정으로 이준을 훑어 내렸다. 저놈의 부장님 소리는. 이준은 살짝 돋아나는 소름을 감추려고 팔뚝을 쓱쓱 문질러댔다.

"그 부장님 소리 좀 그만해. 그냥 형이라고 불러, 알겠냐?"
"그래도..."

그도 그럴 것이, 경찰 조직은 호칭 문화가 약간 특이했다. 통상적으로 순경부터 경장까지는 반장님, 경사는 부장님, 경위는 주임님으로 통했으며 그 위로 경감부터는 직책에 맞게 불렀다. 간혹 경위나 경사가 보직을 맡은 경우는 따로 또 그 호칭을 부르기도 했다.
말 그대로 중구난방에 제 입맛대로였다.
이준은 그 중에서도 '부장님'소리를 굉장히 낯뜨거워했다. 제가 아는 부장님은 속칭

'빼꺼'라 불리는 대머리들에게나 통용되는 단어였다.
아직 스물일곱밖에 먹지 않은 이준에게는 선배나 형이 더 친숙하게 다가왔다. 군기가 세기로는 국내에서 알아주는 모 대학교를 나왔음에도 그는 무척 소탈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어쩌면 무심함에 가까웠는지도 모르겠다.

"상현아, 한번만 더 부장님 소리하면 까버릴 거야, 너."
"옙! 선배님!"

이준의 경고에 특수부대마냥 바짝 군기가 든 신입이 우렁차게 대답했다. 설핏 육군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도 같았다. 남 얘기를 귀담아 듣질 않으니 어디 부대인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 이준이었다.

'저런 어리바리가 어떻게 특공대에 들어 온 건지.'

게다가 제 한 몸 이끌기도 벅찬 오늘, 녀석의 사수자리를 도맡기까지 했다. 시작부터 무언가 꺼림칙한 것이 이준은 뒷골이 서늘한 느낌마저 들었다.
차량에 먼저 오른 이준이 신입에게 턱짓을 했다.

"뭘 꾸물대, 안 가?"
"네, 부장.., 형님."

저 미친놈. 피로에 절은 이준은 태양혈을 지그시 누르면서 느릿한 듯 신속하게 이동하는 차창에 시선을 고정했다. 특수한 상황이니만큼 도로에 깔린 차량들 전부 모세의 기적을 일으켜 주었다.
이윽고 문제의 장소에 도착하자, 헬기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지축을 흔들어댔다. 그 아래로는 119, 구급차, 형사지원차량부터 순찰차까지 빼곡히도 들어차 있었다.
상황을 보아하니, 단순한 정신병자의 난동치고는 스케일이 컸다. 재수가 없으려니, 오늘은 로프를 타고 유리를 깨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설핏 스쳤다.

"까짓 거."

공군 특수부대 출신인 이준으로써는 펼쳐진 일련의 상황들이 전부 모의 훈련처럼 느껴졌다. 빛나는 사명감을 안고 이 직장에 들어온 지 근 5년 만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만 것이다.
웃긴 것은, 매사 투덜거리면서도 승진이 걸린 체력 평가는 단 한 번도 일등을 놓치

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준은 느긋하고 염세적인 성격을 가졌으면서도 일단 경쟁이 붙으면 무조건 일등을 차지해야 직성이 풀렸다. 이것은 타인과 겨루는 데서 기인한 승부욕이라기보다 뒤틀린 자기애의 또 다른 표현방식 같았다.
본의 아니게 오른 '야망캐릭터'로 인해 그를 시기 질투하는 무리도 꽤 있었다. 하나, 이준은 그런 것에 털끝도 관심이 없었다.
태어난 김에 살고 있는 그의 사전에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쓸 만한 소갈머리란 존재하지 않는 법이었다. 다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을 뿐이었다.
그가 삶을 대하는 태도는 딱 그 정도였다. 주면 받고 아님 말고.
이준이 좋아하는 것은 비교적 단순했다. MP5 기관 단총 사격, P7권총 사격, 그리고 탐지견에게 장난치기였다.
같은 팀 핸들러인 전승일 경장의 셰퍼드 '토르'는 이상하리만치 이준을 좋아했다. 이쯤에서 핸들러로 전향하는 것도 썩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야! 정이준! 정신 빼놓고 뭐해! 애들 얼빠진 거 안보여?"

토르에게 새로 나온 '멈머츄르'를 몰래 먹이던 것을 생각하며 키득거리던 이준의 눈빛이 돌연 변했다. 예감이 더럽더라니, 곧장 투입 준비를 하려는 모양이었다.
30피트에서부터 50피트에 이르기까지 레펠이란 레펠은 전부 섭렵하고 있는 이준에게 어려울 것은 없었다.

"예예, 갑니다."

특수소재 방염복으로 만든 작전복에 방탄조끼를 입고, 그 위에 전술조끼를 덮어쓴 이준의 몸은 바윗돌처럼 단단해 보였다. 곧장 방탄 헬멧을 착용한 그는 보안경을 고쳐 쓰고 단단히 메어진 로프 줄을 팡팡, 당겨보았다.
실전은 실전이되 쫄 필요 없었다. 긴장할수록 실수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니까.
이준은 귓바퀴를 에둘러 단단히 고정한 소형 무전장치에 귀를 기울였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동료들 전부 한 곳을 향해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다.

'중앙 홀에서 저 지랄을 떨어?'

이준이 동공을 좁히는 동시에 무전에서 투입명령이 흘러나왔다. 이준은 동료들과 동시에 큐 사인을 맞추고 곧장 로프를 타고 중앙 홀에 집중 된 유리창으로 뛰어내렸다.
중앙 홀의 유리는 이중접합으로 만들어져 체중을 실어 뛰어내려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준은 사전에 계획한대로 설치한 뇌관을 이용해 손쉽게 유

리를 부쉈다.
그가 물꼬를 튼 덕분에 두꺼운 유리벽이 챙그랑! 챙그랑! 파편을 쏟아냈다. 동시에 이준과 동료들은 중앙홀 안으로 침투했다.
첫 작전이라 그런지 신입의 가슴께가 유달리 격하게 오르내렸다. 이준은 녀석에게 진정하라는 손짓을 보내는 동시에 무전을 쳤다.

"전원 투입 완료. 수색 실시."

그들은 작전대로 폭발물 처리반과 두 개 조를 나누어 수색을 폈다. 이 커다란 세금 덩어리 박물관을 한 큐에 날려 보내겠다는 경고 치고는 내부가 너무나 조용했다.
이리 되면 결론은 두 가지였다.
지난번처럼 자의식 과잉이 빚어낸 과대망상증 환자의 발악이거나, 세상 상처는 다 제 것인 양 구는 패배자의 마지막 몸부림.
이준은 그게 어느 것이든 크게 상관없었다. 부장님 소리를 듣는 것도 오글거리는 판에 차라리 공이라도 세워서 특진을 노리는 편이 더 생산적일 듯싶었다. 도랑치고 가재 잡고, 범인잡고 특진하고.
그리 결론내린 이준은 호흡을 가다듬고 중앙 홀에서 왼편으로 꺾어지는 전시장을 흘긋 건너보았다. 은은한 조명 아래에는 머리띠를 두른 아재들이 즐비한 그림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다.
유도 특기자인 이준의 머릿속에 잠잘 때 베개로 쓰던 국사책의 한 페이지가 지나갔다.

'이런 곳을 폭파해서 얻는 게 뭐라고. 관심병 환자 같으니.'

이준은 작게 욕설을 짓씹으며 입구 옆에 세워진 장승만한 안내문을 읽어 내렸다. 입간판에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가 프린팅 되어 있었다.
이어서 이준은 입간판 너머의 폐쇄된 전시장 내부로 시선을 옮겼다.

"?"

뭔가가 있다! 여자처럼 육감이 발달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뛰어난 생존형 오감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 그의 오감이 전시장 안을 자꾸만 가리켰다.

'분명 뭔가 있어.'

평소라면 줘도 안 먹었을 심드렁한 성미가 오늘따라 왜 이리 들끓는지 알 길이 없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강한 이끌림에 이준은 한 발짝, 한 발짝 왼편 전시장을 향했다.
이준의 단독 행동에 놀란 것은 단연코 신입 직원이었다. 사색이 된 그의 낯빛이 보안경 안으로 형형하게 일렁거렸다.
신입은 소리란 소리는 다 죽이고 아주 조용히 이준을 향해 다가갔다

"부장님! 어디 가십니까? 지금은 작전 중입니다! 위험합니다!"

이준은 무척 성가시다는 표정으로 녀석의 갈색 눈동자를 흘겼다. 뭐지? 이 미친놈은? 이준은 속으로 욕설을 뇌까렸다.
녀석의 부장님 소리가 거슬린 건지, 자신을 걱정하는 애송이가 우스워서 그런 건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이 안에 뭔가 있어. 너는 뒤에서 나를 엄호해."

이준의 명령이 떨어지자, 신입의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셨다.

"2조(EOD)와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요?"
"후방 투입."
"예? 그건 작전과 다르지 않습니까?"

원래 작전은 침투조에서 먼저 상황을 살피고 상황을 제거한 후, 폭발물 처리반이 뒤를 닦는 거였다. 하나, 이준은 그런 것을 가릴 정신이 없었다.
그때였다.

「야! 정이준! 너, 작전 중에 누가 노닥거리래! 빨리 빨리 진행 안 해? 너 뭐하는 새끼...」

고막을 향해 박혀있던 무전 장치가 이준의 뇌리까지 쥐고 흔들어댔다. 어찌나 광광대는지 어제 마신 술이 코를 통해 튀어나올 것 같았다.
이준은 미간을 있는 대로 구기며 감고 있던 장치를 신경질적으로 빼냈다. 어깨에서 덜렁거리는 반투명한 장치에서 흘러나오는 고함은 멈출 줄을 몰랐다.
이준은 평범한 공채 출신인 주제에 계급으로 밀고 들어와 팀장 자리를 꿰어 찬 석주임을 향해 한탄을 늘어놓았다.

"일반 출신 주제에 지랄도, 지랄도."

이준은 왼 팔을 들어 동료들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경찰 특공대의 실세이자, 침투조의 선봉을 맡고 있는 그의 명령을 거부할 녀석들은 아무도 없었다.

"나랑 상현이가 먼저 침투한다. 너희들은 뒤를 따라와."

이준은 주특기인 MP5 기관 단총을 조준하며 동학 어쩌고 하는 박물관으로 발을 내딛었다. 그는 빠르게 오르내리는 심장박동을 능숙하게 다스렸다.
제 아무리 특등 사수에 하체를 조준하고 쏴도 변수란 존재하는 법이었다. 잘 못 맞았다가는 반신불구가 되거나 평생 고자가 될지도 모를 터.
이준은 테러범의 허벅지에 예쁘게 한방 쏴 줄 생각이었다.
내부는 박물관 특유의 향과 함께 금빛 유기로 덧씌운 듯한 거대한 조각상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야.., 굉장하잖아?'

조각상의 위용은 실로 엄청났다. 얼굴에 난 주름, 눈동자의 위치까지도 허투루 빚은 게 없었다. 표정 하나하나 살아 숨 쉬는 것처럼 생생하기까지 했다.

"백산 대회.., 동학농민군의 전봉준…"

이준은 보안경을 내리고 금패로 각인한 글귀를 읽어 내려갔다.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문화재 감상이라니, 평소라면 시도조차 하지 않을 그였다.

"응?"

이준의 발아래 달그락, 밟히는 소리가 났다. 그는 발을 살짝 떼어내고 반짝이는 무언가를 응시했다.

'반지? 테러범이 탈취하다 흘린 문화재인가?'

반투명한 쪽빛 반지가 이준의 손에 들림과 동시에 귓전에서 다급한 외침이 울렸다. 이준은 작전 중에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정신이 아득해졌다.

"상현아, 입 좀 닥쳐…, 어? 방금…"

아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던 기척이 등 뒤를 엄습하는 느낌이 들었다. 설마, 테러범이 기습을 노렸나?

"정 부장님!! 뒤쪽에서 폭탄이 터졌…"

신입의 목소리가 고무처럼 늘어지는 가운데, 이준의 귓가에는 처음 들어보는 노래가 물먹은 스펀지처럼 무겁게 울려 댔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 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우리 논에 앉지 마라. 새야 새야 파랑새야」

곧이어, 번쩍하는 섬광과 함께 현세의 의식은 시꺼먼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